

주간기도정보

2026. 1. 13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여호와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라라”

부산·경남 교계, 기도로 여는 2026년… 영적 부흥의 불길 타오른다

신년 특새 대장정, 영남권 주요 교회 일제히 성회



2025년의 끝자락과 2026년의 시작을 기도로 연결하려는 신년특별새벽기도회의 열기가 부산과 경남 전역을 뜨겁게 달궜다. 각 교회는 저마다의 신앙적 고백을 담은 주제를 내걸고 성도들의 영적 각성과 가정의 회복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불씨를 지폈다.

부산 수영로교회(이규현 목사)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는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을 주제로 연말연초 특별새벽기도회를 진행 중이다. 이규현 목사가 직접 강사로 나서 매일 새벽 5시20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해를 맞이할 것을 선포했다. 기도회에서는 수많은 성도가 본당을 가득 메운 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영적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 호산나교회(유진소 목사)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하박국 3장 19절 말씀을 주제로 ‘2026 신년특별새벽집회’를 열었다. 유 목사는 기도를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역의 과정으로 설명하며, 부흥은 숫자나 외형적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가 삶과 생각 속에 회복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에 이러한 영적 생명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인도했다.

새벽이 아닌 저녁 시간에 기도의 불꽃을 이어가는 교회도 있었다. 부산 순복음금정교회(김형근 목사)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매일 저녁 7시30분 ‘2026년 신년축복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열었다. 지난 7일 강단에 선 김준영 선교사는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어디에서든 말씀을 베풀고 가르치는 존재”라고 정의했다. 그는 모든 신자가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부산 구덕교회(이종훈 목사)는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사 60:1)’를 주제로 신년특별새벽기도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종훈 목사와 성도들은 8일간의 여정 동안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문구의 스티커를 한 글자씩 모아 붙이며 개근을 독려했다.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자녀들을 위한 집중 기도 시간을 마련해 다음세대를 향한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

경남 지역 열기도 부산 못지않다. 창원서머나교회(배성현 목사)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온 가족 새벽예배를 진행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에 이르는 요셉의 삶을 통해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을 묵상했다. 진주교회(김기덕 목사)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자원하는 심령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라’를 주제로 새벽 4시50분부터 기도의 문을 열었다.

부산 시내산기도원에서는 미스바구국기도회가 열렸다. 지난 8일 강사로 나선 조용백 새우리교회 목사는 ‘찬양으로 인생의 한밤중을 이겨라’를 주제로 고난 중에도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자세를 전했다. 조 목사는 “인생의 억울하고 힘든 ‘한밤중’을 만날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찬송과 기도로 승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년을 여는 부산 경남의 특별새벽기도회는 단순한 연례행사를 넘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시대적 사명을 확인하는 영적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출처: 국민일보 종합).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은즉 이 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역대하 16:9)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로마서 5:21)

하나님, 2026년 새해를 열며 부산 경남, 전국 곳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한국교회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사 성도들의 심령에 참된 부흥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죄와 사망에 얹매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사로잡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의 소망을 넘어 영원한 산 소망을 품고 이 땅과 열방의 위기 속에서 탄식하는 영혼들에게 은혜가 왕 노릇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케 하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을 아는 성도들의 기도가 끊임없이 올라가게 하사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늘의 뜻이 이뤄지게 하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북한 농촌 주민들 “새해에는 노력한 만큼 먹고 살았으면”

농장 10곳 중 6곳이 ‘빚더미’에 허덕여...



북한이 ‘새 시대 농촌 혁명 강령’을 들고 나온 지 5년 차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농촌 지역에 살림집을 대대적으로 건설했으나 실제 입주한 주민들은 오히려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농사 여건도 일부 개선됐지만, 여전히 적은 분배량과 과도한 동원, 누적된 빚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어 생활상 나아진 것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 살림집에 입주한 평안북도 염주군 농촌 지역의 한 주민 A씨는 “(새집이) 눈에 보이기에는 확실히 좋아 보인다”면서도 “막상 살아보니 예전 집이 더 나았다”고 말했다. A씨는 “자재가 부족한 상태에서 인력만 동원해 지은 집이라 습기 차단이나 방풍이 제대로 안 돼 여름에는 벽이 놋눅해지고 겨울에는 바람이 그대로 들어온다”고 토로했다.

새 살림집은 풀과 짚, 땅감을 둘 공간도 부족하고 집짐승을 키울 공간도 여의찮다. 게다가 집들이 밀집되고 담장 높아도 낮아져 사생활이 이웃에게 노출된다. A씨는 “가뜩이나 이것저것 단속되고 통제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게 현실인데, 새 살림집에 입주하면서는 감시 환경이 더욱 강화돼 이전보다 더 불편해졌다는 느낌이 크다”고 했다.

황해남도 재령군의 농장원 B씨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농사 여건은 조금 나아졌지만 결국 본질은 그대로”라고 평가했다. 특히 분배량이 여전히 적은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명절 때 받은 곡식까지 다 합쳐도 받아야 할 양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받은 것마저 각종 명목으로 또 걷어가서 더 줄어든다고 했다.

최근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결산 결과 빚을 갚지 못한 농장이 전체의 6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의 농업 예산 감소로 농업 자재, 농기계, 시설 투자 비용을 자체 부담해야 하면서 과도한 부채를 떠안게 됐다.

B씨는 2022년 농업근로자동맹 제9차 대회를 계기로 누적된 빚 문제를 토로했다. 실적을 만들기 위해 개인 빚까지 챙기며 곡식을 내놨는데, 지금까지도 이를 갚지 못하고 이자만 계속 불어나 현재 13톤에 달하는 빚을 떠안게 됐다. 그는 “그래서 그 대회를 ‘빚의 대잔치’라고 말한다”며 “성과를 위해 아래에서 빚을 챙겨 하는 구조가 계속 돌고 돋다”고 말했다.

국가 계획 수행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는 2모작 재배도 문제다. 토양이 회복될 시간을 갖지 못하면서 토지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영비는 상승하는 반면 농장 수익은 줄어들어 자립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혹독한 생활 환경과 갖가지 어려움에 놓인 농촌 주민들이 2026년 새해에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A씨는 “질 낮은 집을 공짜로 주는 것보다 노력한 만큼 벌어서 자기가 살 집을 스스로 짓고 고쳐가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B씨는 “보여주기식 성과만 늘어놓지 말고, 선전의 단 10분의 1만이라도 현실이 되면 좋겠다”며 “일한 만큼 먹고살 수 있는 구조가 가장 절실하다”고 말했다(출처: 데일리NK 종합).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옵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예레미야애가 3:19-21,23)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골로새서 1:13-14)

하나님, 거품 섞인 선전으로 나라의 체제를 자랑하지만, 그 실상은 빈약하여 과도한 부채와 노역을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북한 사회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주께 고합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바라고 사는 것이 절실한 새해 소원이 될 만큼 고초와 쓴 쑥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주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선하신 주의 손의 돌보심을 받게 하소서. 마음이 낙심한 자에게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의 성실하심을 나타내사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속량하심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와 사망으로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이 영원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이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은둔청년 세상 밖으로 이끄는 ‘동병상련 길잡이’

54만 은둔청년 시대, 고립의 시간을 건너 회복의 현장으로…



학창 시절 학교폭력으로 교문을 등진 뒤 7년 넘게 방 안에만 머물렀던 청년이 있다. 세상과 단절된 시간을 건너온 그는 이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청년들을 세상 밖으로 이끄는 조력자가 됐다. 고립은둔청년을 돋는 비영리기관 (사)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센터장 김옥란)에서 일하는 송경준(30) 간사의 이야기다.

송 간사는 중학교 시절부터 집단 따돌림과 폭력에 시달렸다. 책상엔 낙서가 가득 했고 교실은 늘 두려움의 공간이었다. 가까스로 중학교를 졸업했지만 고등학교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고1 때 자퇴했다. 이후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깊어지며 사회와 단절됐고, 그는 “밥을 먹을 때를 제외하곤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처럼 외출이 거의 없고 집 안에서만 생활하며, 지난 1주일간 경제활동이 없고 최근 1개월 이내 구직이나 학업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된 청년을 ‘은둔청년’이라 부른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은둔청년은 54만 명을 넘어 2022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청년 인구의 약 5%에 달하는 수준이다.

20대 중반까지 이어진 송 간사의 은둔 생활은 길고 어두웠다. 사람을 만나는 일 자체가 두려웠고, 사회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에 시달렸다. 그러던 중 우연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의 공동생활 프로그램 모집 공고를 접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울로 향했다. 센터에서의 공동생활과 상담을 통해 그의 일상은 서서히 회복됐다.

회복의 과정에서 신앙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비신자였던 그는 센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접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는 “처음엔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친구와 사랑으로 함께하시는 분으로 인식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후 송 간사는 회복의 현장에 남아 2년 전부터 센터 간사로 일하며 고립은둔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을 돋고 있다.

센터는 은둔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편견을 피하기 위해 ‘고립은둔청년’이라는 용어 대신 서로를 ‘크루’라고 부른다. ‘크루’는 한 배를 탄 동료라는 뜻으로, 고립에서 벗어날 길을 함께 찾는다는 의미다. 청년들은 상담사와 코치와의 식탁 교제, 예체능 활동 등을 통해 신체와 정서, 관계 회복을 이뤄간다. 인근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락 제작에도 참여하며 ‘도움받는 사람’에서 ‘돕는 사람’으로의 전환을 경험한다.

김옥란 센터장은 “공간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에 늘 함께 있어 주는 사람”이라며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경제 활동과 공동체 경험이 회복 탄력성을 키운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회복은 한 사람의 삶을 끝까지 동행해주는 복 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며 “한국교회가 이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사회로 다시 나아갈 통로를 함께 만들 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출처: 국민일보, 기도24·365본부 종합).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린도후서 4:6)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브리서 10:23-25)

하나님, 작은 방에 스스로 자신을 가두고 세상과 절연한 채 두려움 불안 속에 은둔 생활을 하는 청년이 54만 명이 넘는다는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께 간구합니다. 훌로된 청년들에게 손을 내밀어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저들을 이끄는 단체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리며, 한국교회와 선교단체가 이 일에 함께 연합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십자가 복음 만이 고립된 은둔청년들의 소망임을 고백하오니, 저들의 어두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날이 가까운 이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예수교회로 저들을 일으켜 주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독실1 -

기독실2 -

기독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